

전북대, 청년 TLO 육성사업 '탄력'

올해 재정지원 대폭 늘어... 13억 2천여만원 확보 34세 미만 이공계 학·석사 졸업생 취·창업 지원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조재영)이 '청년 TLO 육성사업' 1차년도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올해 6억 1,700만원이 증액된 13억 2천여 만원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만 34세 미만 이공계 학사, 석사 졸업생을 대학 산학협력단이 청년TLO 연구원으로 채용해 대학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민간 이전을 통해 취·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 지원을 통해 전북대는 올해 이공계 미취업 졸업생 102명(학사 76명, 석·박사 26명)을 선발, 상·하반기 각 6개월 동안 취업과 창업, 기술이전 및 사업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해 8월 만 34세 미만 이공계 미취업 학·석사 졸업자 60명을 청년 TLO 연구원으로 채용한 전북대는 그동안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창

업 활동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전북대는 이미 올 2월 상반기 청년 TLO 연구원 60명을 채용해 지난 8월 전북대 자동차산학협력원에서 발대식을 갖고 청년 기술이전 전문가 양성에 본격 나서고 있다.

현재 2주간 직무연수를 통해 지식재산권, 기술마케팅과 기술이전 등 기술이전 및 사업화 교육 프로그램과 더불어 취·창업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이러한 각종 전문교육을 통해 취업 및 창업 역량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지역산업에 필요한 우수 인재를 적시에 양성, 배출해 대학과 지역산업의 동반성장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조재영 전북대 산학협력단장은 "전북대학교가 보유한 우수기술과 취·창업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산업 활성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청년 TLO 육성사업' 1차년도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올해 6억 1,700만원이 증액된 13억 2천여 만원을 지원받는다.

화 및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올해 2차년도 사업에서도 청년TLO 연구원들의 취·창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우수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사업화 증대, 전라북도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일반직공무원 글로벌마인드 높인다

전북교육청, 글로벌 테마연수 추진... 내달 17일까지 접수

전북교육청이 일반직공무원을 대상으로 글로벌 테마연수를 추진한다.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일반직공무원의 문제해결 능력과 책무성을 신장하고, 글로벌 마인드 제고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2019 일반직공무원 글로벌 테마연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정주제 2팀(팀별 12명 이내), 자유주제 10팀(팀별 6명 이내) 등 총 12개팀 84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지정주제의 경우 각 부서에서 제출한 주요 현안과제 중에서 행정국과 과장회의를 통해 선정하고, 자유주제는 전북교육청 주요 정책 중 선진사례 연구가 필요한 주제 또는 일반직공무원의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주제로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연수를 희망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연수팀을 구성, 연수계획서 및 요약서를 작성해 도교육청 총무과로 4월 17일

까지 접수하면 된다.

다만 지난 2013~2018년 글로벌테마연수 참가자, 최근 3년 이내 국비·지방비 또는 외부단체 지원금으로 국외연수를 다녀온 사람, 재직기간이 1년 6개월 미만 공무원은 제외된다.

이후 별도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 말 최종 선발팀을 발표한다.

주요 심사 기준은 연수주제의 참신성 및 교육행정 현안업무의 연관성, 연수결과의 교육현장 적용 가능성, 연수팀의 전문성, 직렬·직급의 다양성, 국외연수 미경험자 구성 비율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연수의 전문성 확보와 다양한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연수팀을 구성하면 심사시 점이 적용된다"며, "전북교육청 정책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학교급식 점검단 사전연수 실시

전북교육청은 2019 학교급식 점검단 사전 연수를 지난 20일 8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 연수는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지역교육청 급식담당자를 비롯해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에 참여하는 민간인 점검단(학부모·소비자감시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연수 내용은 학교급식 위생·안전관

리 기준 및 점검항목, 점검자 준수사항, 학교급식 세부점검 요령 등이다.

도교육청은 학교급식 점검단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학교급식 점검의 실효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급식에 대한 꼼꼼한 점검으로 식중독을 예방하고,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의료체계 선진화... '윤한덕의 노력 헛되지 않도록'

응급의료체계 개선 협의체 출범

국내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힘써온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뜻을 이어받기 위해 민간이 구체적인 응급의료 개선 실행계획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20일 응급의료체계 주요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간합동 '응급의료체계 개선 협의체'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8~2022년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담긴 정책 방향을 토대로 주요 논의과제를 도출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 논의는 현장이송단계, 병원단계, 응급의료기관 등 3개 실무 분과별로 진행된다.

현장이송분과는 지역 단위에서 중증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최적 치료가 가

능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병원분과에선 대형병원 응급실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중소병원 응급실은 경증환자 진료에 집중하는 등 응급의료기관 중별 역할 분담 방안이 논의된다.

응급의료기반분과는 지역 간 응급의료 격차 해소 및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구축, 응급의료 정책지원조직으로서 중앙응급의료센터 역할 강화 방안을 다룬다.

이번 협의체는 강도태 복지부 보건 의료정책실장과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응급의료 정책 입안자, 민간 전문가, 환자단체 대표 등 위원 12명이 참여한다.

사무국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두고 논의된 주요 결과는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돼 향후 정책에 반영된다.

/뉴스

'배움이 즐거운 학생,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전주교육지원청 위센터,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사회성·자아존중감 향상 기대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항근) 위(Wee)센터는 오는 29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는 사회성 향상을 주제로 '행복한 11살' 프로그램을, 중학교는 자아존중감 향상을 주제로 '평화로운 교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초등학교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은 자기인식과 올바른 의사소통으로 자기조절 능력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학교폭력 행동에 대한 개념을 인식시킴으로써 학교 폭력의 종류 및 심각성을 알리고, 올바른 친구관계 맺기 등의 교육 내용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들로 채워졌다.

중학생 평화로운 교실 만들기 프로그램은 학교폭력이 없는 평화로운 교실을 만들기 위해 학생들이 각자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공동체 회복과 올바른 친구관계 맺기를 통해



전주교육지원청 위센터가 오는 29일까지 관내 초·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진행한다.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전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학교폭력이 발

생했을 경우 대처방안을 알고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올바른 대화법을 익힘으로써 좋은 친구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기울 수 있으며, 무엇보다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